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재향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1962년 5월 16일 창간 |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제844호

제69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사

생존권 수호위해 안보활동 적극 추진해야



김 진 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예) 육군대장

오늘은 제69주년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공식적인 기념행사를 실시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 뜻 깊은 향군의 날을 자축하며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기원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병력 지원을 위한 준군사조직으로 창설된 태생적인 안보단체입니다.

젊음을 국가방위에 헌신한 육·해·공군 제대군인이 회원인 우리 향군은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국가안보 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전국 조직과 해외 조직을 갖추고 국가 안보와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향군은 지난 2017년 8월, 제가 향군 회장에 취임 후 '향군 정체성 제정 선포식' 을 통해 대내외에 향군의 정체성을 '안보단체' 로 규정하였습니다.

향군은 안보단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권의 진영 논리가 아닌 오직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안보사안이 있을 때마다 적시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 1, 2차 국빈 방한 환영행사,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공기원 환송행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행사지원, 육·해·공군 장병 및 주한미군 위문행사, 추모의 벽 성금 모금 및 미 참전용사 보훈의 날 행사, 한·일 군사갈등 조기 해소를 위한 방일 활동, 코로나 극복을 위한 마스크 및 성금전달 등 안보단체로서 두 손으로 다 꼽기 어려울 만큼 많은 활동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69년이 지난 오늘의 향군은 1천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 성장·발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몸바쳐온 향군 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친애하는 향군회원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안보현실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이 "우리와 상관없고 미국만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이다" 라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날이 갈수록 무감각해 지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방을 소홀히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아프가니스탄은 5만 여 명에 불과한 탈레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화는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천만 향군회원은 물론 국민 모두가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남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는 금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설 69주년을 맞은 우리 향군은 앞으로도 국가안보 제2의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안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 공식적인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창설 70주년을 맞아 뜻 깊고 다채로운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기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 19 상황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끝으로 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69주년 재향군인의 날' 축하 메시지와 축전을 보내 주신 대내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1천만 향군회원 및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향군 창설 69돌… "안보단체 역할 다해와"

창설 70주년 엠블럼 발표, 미래 향한 재도약 의지 공표
천안함 고 정종율 상사 유족 정주환 군 등 25명 장학금

김진호 회장은 10월8일 향군 창설 69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를 발표하고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병력 동원을 위한 준군사조직으로 창설된 태생적인 안보단체" 라며 "지난 70년 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국가안보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 제2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 왔다" 고 강조했다.

또 "창설 69주년을 맞은 향군은 앞으로도 국가안보 제2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향군은 내년 창설 70주년을 앞두고 엠블럼도 확정 발표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의지를 공표했다. 태극기와 향군 로고의 상징 색상인 청색과 홍색을 기본으로 숫자 70을 형상화 했으며 숫자 0안에는 향군을 상징하는 로고와 함께 지나온 70년 역사와 희망찬 미래의 70년을 슬로건과 함께 도도히 흐르는 물결무늬로 표현함으로써 앞으로도 안보단체로서 국민과 함께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향군은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향군이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기념식을 비롯한 대면 행사를 모두 생략했다. 아울러 그동안 실시해 오던 정부 포상은 국가보훈처의 각 지청을 통해 위임수여하고 향군 대휘장을 비롯한 향군표창도 각급회에 위임 수여했다.

향군의 날을 맞아 향군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향군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형년 인천시회장 등 3명에게 국민포장을, 43명에게 대통령·국무총리·국가보훈처장상을 수여했다. 그리고 향군표창으로 박윤국 포천시장외 4명에게 향군대휘장을 수여했고 270여명에게 향군공로휘장, 향군회장 표창, 공로패, 감사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날 참전용사 후손과 향군회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급회로부터 추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주원 학생 등 25명에게 향군장학금 각각 100만원씩을 온라인으로 전달했다. 이중에는 천안함 용사 故정종율 상사의 유족 정주환 군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화환을 보내와 향군 창설 69주년을 축하했다.

▶제69주년 향군의 날 포상자 명단

■정부 포상

개 인

국민포장
김형년 (인천시 향군 회장)
나종수 (광주 전남 향군 회장)
황태연 (서울시 영등포구 향군 회장)

대통령 표창
권동용 (강원도 향군 회장)
한경용 (제주도 향군 사무처장)
홍순임 (경상북도 향군 여성회장)
이왕근 (충남 금산군 향군 회장)
조용호 (충북 음성군 향군 자문위원)
이숙종 (경기도 향군 여성회장)
장동선 (서울시 노원구 향군 회장)
경화수 (서울시 중구 향군 회장)
김종환 (전남 영암군 향군 회장)

국무총리 표창
허문수 (광주시 광산구 향군 회장)
이상배 (경기도 부천시 사무국장)
유영철 (경북 의성군 사무국장)
권승환 (전북 완주군 사무국장)
유재웅 (서울시 동작구 사무국장)
박현미 (본부 교육운영담당관)
조연숙 (서울시 송파구 여성회 감사)
송필근 (본부 기획담당관)
배명수 (경남 함안군 향군 회장)

국가보훈처장 표창
박종화 (전북 남원 향군 사무국장)
임용우 (전북 무안군 향군 회장)
서경식 (충청북도 향군 해군부회장)
전분희 (인천시 미추홀구 행정과장)
노현숙 (본부 총무관재담당관)
최수경 (본부 예산자금담당관)
하영숙 (경북 구미시 향군 여성회장)
우승주 (본부 사업계획담당관)
우보리 (본부 현충사업담당관)
정현숙 (경북 봉화군 향군 행정과정)
임응규 (강원도 정선군 향군 회장)

단 체

대통령 표창
대구시 동구 향군
전북 장수군 향군
충남 홍성군 향군
경북 영양군 향군

국무총리 표창
강원도 춘천시 향군
서울시 구로구 향군
경남 통영시 향군
대전시 동구 향군
강원도 양구군 향군
경남 창녕군 향군

국가보훈처장 표창
서울시 영등포구 향군
제주도 서귀포시 향군
경기도 여주시 향군
미국 북중부 향군

■향군 포상

향군대휘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박윤국 (경기도 포천시 시장)
조병옥 (충북 음성군 군수)
이건수 (동아 일렉콤 회장)
윤상기 (경남 하동군 군수)

공로휘장 28명
회장표창 199명
감사패 18명
공로패 26명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갑시다”



김 희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장
예)육군중장

친애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총회구성원(회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한 초유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향군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과거 향군의 선거는 금품선거, 부정선거 등 부패선거의 온상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과 협조로 최근 3년간 산하 각급회 선거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향군선거는 부패선거라는 전제하에 본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한 정관에 대하여, 본부 이사 23인이 향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중임제로 다시 환원시키는 개정안을 발의 하여, 지난 총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는 향군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4월 향군회장 선거는 지금까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이번 선거가 모범적인 선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공명정대한 선거와 향군의 발전을 위하여 선거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충분한 포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 위반 사례〉

- **금품수수 또는 향응, 식사제공**
-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중상모략**
- **개인별 광고 또는 유인물, 책자 등을 제작 배포**
- **선거인 호별 방문 또는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캠프 운영**
- **향군내 비공식 단체 및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끝으로 저희 “제37대 향군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는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총회구성원(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향군, 선관위구성…공명선거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

김진호회장 임명장 수여, 내년 선거 앞두고 불법·반칙 척결 다짐



김진호 향군회장은 10월13일 내년 4월 본회장 선거를 앞두고 15명의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10월13일 내년 4월 본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향군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7조에 따라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으로 구성 됐으며 이들은 선거가 마무리되고 사후조치까지 끝나는 2022년 6월13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규정에 따라 부회장 중 선임인 김희중(예, 육군중장) 육군 부회장이 임명 되었으며 위원에는 중앙이사, 시 도회장, 친목단체장 중에서 군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편성했다.

이날 김진호 회장은 “내년에 실시되는 선거는 확실한 공명선거를 통해 향군의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며 “선관위가 선거관련 제반 업무를 법과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집행하여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 고 당부했다.



향군 역사 바로 알기 ㊱

향군 역사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향군사' 발간

주요 업적 및 활동내용 보존, 회원 자긍심 높이고 하나로 결집

향군은 내년 2월 1일로 창설 7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향군은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10년 단위로 향군사를 편찬하였다.

최초의 향군사는 '향군 20년사' 이다 1968년 5월31일 향군의 주요 업적과 활동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회사편찬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4월15일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 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향군 20년사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창설 이래 처음으로 향군사 편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집필위원 2명을 위촉하여 원고 작성을 하도록 하고 각 국실에서는 관련 역사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편찬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9개월만인 1973년 1월 원고가 최종 마감되었다. 이어 출판사로 선정된 공화출판에 인쇄를 의뢰하여 2개월 만인 1973년 3월13일 향군 20년사가 발간되었다.

향군 20년사는 4×6 배판 크기에 800페이지 분량이며 총 1,500부를 발간하여 본회 각 국실과 각 급회, 관련 주요기관에 배포되었다.

향군 최초 20년사 발간 이후 10년마다 발간, 위상 제고

그 이후 향군 30년사는 1981년 1월5일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년사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 집필위원 2명을 위촉하여 1년 5개월에 걸친 집필작업을 거쳐 1982년 5월 4×5 배판 규격에 1,300 페이지 분량으로 1,500부를 발간 배포하였다.

또 향군 40년사는 1991년 2월 1일 편찬위원회가 구성되고 외부 전문 집필위원 3명을 위촉하여 동년 10월 30일 발간되었으며 국배판 규격에 1,041페이지 분량으로 800부를 발간하여 국방부, 보훈처, 각급회, 유관기관과 도서관 등에 배포하였다.

향군 50년사 편찬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추진되었다. 2001년 10월 22일 향군 50년사 편찬 계획을 확정하였다. 창설 50주년을 맞아 향군의 반세기 역사를 정리하고 아울러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는 의의를 담았다.

따라서 2002년 1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 실장을 위원, 홍보실장을 간사로 하는 편찬위원회와 홍보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국실 주무부장이 위원이 되는 편찬 실무소위원회를 편성하여 본격적인 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집필 및 편집도 회사 발간 전문기획사인 '베스트라이프' 의 사사집필팀(총 5명)이 전담하여 발간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작성한 원고에 대해서 2차에 걸친 실무소위원회의 수정 보완과 편찬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2002년 12월 1,300페이지 분량의 향군 반세기 역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향군 50년사가 발간되어 1천만 향군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회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됨은 물론 향군이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향군 반세기 50년사, 국제화 비전 제시 재정위기 속에서도 60년사 발간

그 이후 60년사 편찬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08년부터 정부의 수의계약 중단조치, 부동산 경기 침체, 직영사업의 부실초래에 이어 2011년 8월 MBC PD수첩에 '향군의 부도위기' 를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2012년 6월 중앙일보는 '향군 부채 5,000억 원, 재정부실' 등이 보도되면서 향군 내부의 재정위기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60년사 편찬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세환 회장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창설 60년에 60년사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향군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60년사를 발간하라" 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여 60년사 편찬이 시작되었다.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여러 가지 향군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예산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찬실무위원회를 향군 출신의 전직 간부를 집필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편찬 내용도 50년사처럼 합본으로 발간하지 못하고 연도별로 주요 활동과 사진 중심으로 편집하는가 하면 중요한 테마 15개를 선정하여 요약정리하는 한편 각급회의 주요활동을 담았다.

70년사 발간을 앞두고 어떻게 지나온 역사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홍보실〉

안보전망대

종전선언, 대북 적대시 정책 없다는 상징 조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0월25일 'NK포럼' 기조발표에서 "종전선언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북측과 대화 재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 최장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 최장의 전쟁은 6·25 전쟁"이라며 "종전선언은 대북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 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달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두 차례 담화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무력증강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 및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미 국방부, "中, 한반도 비핵화 역할 해야"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10월25일(현지시간)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1기 발사한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며 "우리는 중국이 역내 안보라는 상호 이익을 위해 한층 기여하고 협조적이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 힘을 모으거나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수도 있다" 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을지태극연습', 불순한 군사적 망동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시 대응능력을 점검하는 '을지태극연습' 을 놓고 북한은 10월26일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를 통해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적' 으로 규정해놓고 우리와의 전면전을 가상해 벌이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 시연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며 "남조선 호전세력의 이러한 불장난 소동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의 집중적 발로이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려는 불순한 군사적 망동" 이라고 비난했다. 또 "군사적 대결 소동은 긴장 격화와 북남관계 파국의 근원" 이라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으로 차례질 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자멸적 결과밖에 없을 것" 이라고 위협했다.



이달의 안보칼럼

국가안보, 대통령의 중요한 기본 임무… 대선 핵심 이슈로 다뤄야!



이 정 린
전 국방부차관
향군 자문위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방위 태세를 강화하여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임무이다. 확고한 국방태세가 이루어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가 방위를 위한 필요한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경제발전은 상호연관을 이루면서 선순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 시책은 국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나(Bottom Up), 안보정책만은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방위를 위한 확고한 정책을 세워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Top Down).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안보정책은 5년마다 바뀌는 정부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방력의 핵심인 전투기, 전투함정 등 고도의 정밀무기들은 이를 확보 하는 데만 10년 내지 15년이 소요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이나 TV토론회를 보면 시급한 과제인 국가안보 위기 문제가 다른 이슈들에 밀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북한은 UN결의를 무시하고 금년 들어 벌써 8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여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예 실종된 상태다.

대선 정국, 실종된 국가안보 이슈

우리는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20만 이상의 특수부대로 무장한 강력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부를 누리며 편안히 살고 있는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미국의 카터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려 할 때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베시장군과 참모장 존 싱글로브장군의 강력한 반대로 주한 미군 철수가 중지되었다. 카터대통령은 한국 방문 시 김포공항에서 곧장 동두천에 있는 미군2사단 사령부로 직행하였고 다음날 헬리콥터로 서울에 와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각 장대비가 내려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 중 베시 장군이 카터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서는 절대 안 됨을 설득할 수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 참모장이었던 존 싱글로브장군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여 강제 전역 조치되었고, 베시 장군은 미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으나 대통령 면담 시 주한 미군 철수를 더욱 강력히 반대하여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우리들은 이분들의 공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유병현 대장(전 합참의장, 주미대사) 등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1978년 11월 7일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전쟁 발발 시 수십만 명의 병력과 여러 개의 항모단, 공군전투기 수천 대가 증파되어 한국군과 연합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고 6.25와 같은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령관은 미군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 것을 두고 민족자존심의 문제라고 하는데 미군이 사령관을 맡아야 유사시 계획된 증파병력을 효율적으로 작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유럽의 나토사령부 사령관은 미군이 전부 다 맡고 있다.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작전훈련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자에 와서 완벽한 준비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작전 지휘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한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순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만으로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인류역사를 보면 확고한 대비태세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독배와 같았다. 1939년 영국의 체임버린 총리와 독일 히틀러의 평화협정은 오히려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고, 1941년 독,소 불가침조약은 22개월 만에 휴지가 되었으며, 자유월남은 1973년 파리평화협정 체결 후 14개월 만에 패망했다.

평화는 이를 유지할만한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지 평화조약이나 종전선언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것임을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안보정책,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그동안 1972년 7월4일, 7.4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역대 정권마다 북한과 수많은 회담과 성명 합의서를 체결하고 돈과 물자 등을 제공하였지만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각종 살상무기를 개발할 시간과 자금을 대주는 꼴이 되었다. 그나마 1991년 2월18일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간의 가장 잘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 남북간 경계선을 확고히 지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남북간에 화해와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현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차기 대통령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이 되면 UN사, 연합사해체와 미군철수 요구로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론이 분열되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전시작전지휘통제권 전환이라는 미명 하에 한미연합사 체제를 약화시키고, 사령관을 한국군장군으로 바꾸려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고, 위험한 처사로 여겨진다.

우리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여건에서 안전하게 생존하려면 우리의 자체적인 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 우산만을 의존할 수는 없다. 우리 자체의 잠재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2%대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빠른 기일 내에 최소 3%대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점차적으로 4-5% 대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보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지역, 이념을 초월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안보문제를 최우선 핵심 이슈로 다루어 확실한 안보관을 갖추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단신

전쟁기념관에 독일 참전기념비 건립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6?25전쟁 의료지원국인 독일의 참전기념비가 들어선다.

독일 적십자병원의 실제 활동은 정전협정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방문 당시 독일의 6?25전쟁 참전 사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후 국방부와 학계의 고증을 통해 2018년 6월에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참전국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충시설 및 기념관 전시물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쟁기념관에서는 기념비를 설치하게 됐다.

현재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는 참전 국가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6?25전쟁 참전 21개국 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 파견된 독일 적십자 야전병원은 1954년 5월부터 1959년 3월까지 24만 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했으며, 6천 명 이상의 출산을 도왔고 1만 6천 여 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9·19 군사합의, 남북 군사충돌 방지 큰 역할

10월 6일 동북아안보정책 포럼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군사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실효적인 합의서"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 실질적인 이행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은 9·19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진행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이상철 5사단장



신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학군 28기 이상철 육군 5사단장이 내정됐다. 국방부는 이상철 소장이 제5사단장, 2작전사 작전처장 및 교훈처장, 검열과장, 제53사단 125연대장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서, 군사안보지원사 개혁을 완수하고 균형있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25 71주년 및 유엔가입 30주년 기념… 참전용사 헌신 감사

전쟁기념관, 제1회 유엔문화주간 '고마운 은인들에게' 개최



전쟁기념관은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고마운 은인들에게' 라는 주제로 10월24일 유엔데이를 기념하는 제1회 유엔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유엔문화주간은 6·25전쟁 발발 71주년과 우리나라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참전국(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행사로는 먼저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토크, 가족대상 특별 프로그램 '참전국 탐험대' 를 비롯하여 공연·전시·영화·해설·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다. 마련되어 있다.

유엔문화주간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0월19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문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행사의 시작을 축하한 후 후 주요내빈과 함께 Thanks to you 스토리텔러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2021년 제대군인주간… 10월5일부터 4일간 진행

안보위해 헌신한 제대군인 자긍심 높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



10월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국가보훈처는 10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청춘을 바쳐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분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제대군인주간'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10회째 열리는 '제대군인주간' 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로 기간을 정해 열리며 특히 올해는 지난 6월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대군인주간' 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의 위상을 한층 격상하고 제대군인 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첫째 날인 10월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대군인주간 기념식' 에는 사회자가 제대군인 정책의 주요화두를 제시하고 국무총리의 '제대군인주간' 에 대한 영상 메시지, '2021년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 공모' 의 당선자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또 '제대군인 정책 비전 선포식' 과 함께 '리;스펙 제대군인' 을 외치며 행사의 서막을 알렸다.

6일에는 김진호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김희곤·유의동·송재호 의원과 공동으로 '제대군인 정책 발전방안 세미나' 가 열려 제대군인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방안, 보훈체계 변화와 제대군인 지원정책 등을 논의했다.

7일에는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강료 감면 등 제대군인 교육지원을 위한 '국가보훈처-세종사이버대학교 간의 업무협약' 을 체결됐으며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올해 선정된 13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중 시설보안·경비 업체인 ㈜건은을 방문,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제대군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종합적인 제대군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제대군인주간' 행사를 통해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훈단신

'2021 부산유엔위크' 개최



부산시는 10월22일부터 11월11일까지 '2021 부산유엔위크' 를 개최하고 세계평화포럼, 사진전, 추모식, 걷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유엔 가입 30주년과 유엔 기념공원 조성 70주년을 맞는 올해 부산유엔위크에서는 △유엔 서포터즈 운영, 리멤버 롤콜 등 사전 행사 △제76회 유엔의 날 기념식, 세계평화포럼, '리멤버 히어로즈 인 부산' 사진전 등 감사주간 행사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인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 세계평화 걷기 대회 등 추모주간 행사 등이 열린다.

먼저 10월22일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하는 '제76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월24일 '평화의 빛 점등 행사', 10월27일 '세계평화포럼' 등이 열렸으며 남구 일대 유엔특구에서 유엔 참전용사 추모 및 세계평화 중심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평화걷기대회' 도 11월11일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11월11일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식을 끝으로 행사의 막을 내린다.

국가보훈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국가보훈처가 10월7일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위기상황에 처한 국가유공자 긴급지원제도 마련' 등을 선정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차관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 국가유공자 긴급지원제도 마련 등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보훈처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 를 구성해 기존 보훈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해 천안함 참전 장병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영예로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다.

충북 옥천군 향군, 후계세대 호국의식 고양

3.1만세공원 기념탑 등 현충시설 견학 … 감상문 시상도



충북 옥천군 향군(회장 홍성권)이 관내 아동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충시설 견학행사를 실시했다.

옥천군 향군은 10월16일 지용학당 학생(4~6학년)을 초청, 충혼공원, 청산 3.1독립만세공원 기념탑 등을 견학했으며 10월20일에는 청산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산 3.1 독립만세공원과 조동호 선생 생가지 견학을 진행했다.

아울러 견학을 마친 학생이 제출한 감상문을 심사한 후 최우수, 우수, 장려상 각 1명에게 10만원, 5만원, 3만원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했다.

홍성권 회장은 "전쟁 이후 태어난 어린 아이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경북 칠곡 향군, '나라사랑 시 낭송 대회'

청소년 호국정신 고취 … 대상에 왜관동부초 김문정 학생



시낭송 대회 대상에는 왜관동부초 6학년 김문정 학생이 수상, 상장과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았다.

경북 칠곡군 향군(회장 이길수)은 10월9일 군 보훈회관에서 경상북도 초, 중 학생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시낭송 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여파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의 호국, 애국 시 낭송 영상을 받아 심사위원 5명이 평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대상(경북교육청 교육감 상)은 왜관동부초 6학년 김문정 학생이 수상, 상장과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았다. 아울러 총 8명의 학생이 그 외 상을 수상,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나라사랑 시 낭송 대회는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고 호국시 암송을 통해 청소년들의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바른인성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성남 향군, 은수미 시장과 간담회

"향군의 나라사랑정신 깊이 존중,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경기도 성남시 향군(회장 우건식)은 10월6일 향군의 날을 앞두고 향군회관을 방문한 은수미 성남시장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향군은 그동안 참전어르신 위로잔치, 천안함 폭침 추모대회 등을 개최해 성남시 안보의식 확산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향군인 분들과 관계자분들의 나라사랑정신을 깊이 존중하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우건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렇게 방문하여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고 답했다.

이어 은 시장은 지난해 간담회 당시 성남시 향군이 건의했던 사항 중 "코로나19에 따라 참전 어르신 위로잔치를 격려품 전달 사업으로 변경 요청했던 건은 작년 변경 승인 후 집행 완료됐고, 직원 인건비 보조금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에 상여금,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를 편성할 예정이며 차량지원 건에 대해서는 2022년 추경 편성으로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됐다" 고 밝혔다.

충남 당진 향군, 재난 안전 역량 강화 교육

여성회원 대상,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충남 당진시 향군(회장 배성호)이 향군회관에서 10월14일부터 여성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역량 강화 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여성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식생활 안전 ▲소방·자연재해 ▲노인성 질환 대비 건강관리 ▲교통안전 ▲안전체험관 견학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까지 5회 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당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제안전도시 시민참여사업' 공모사업 중 하나로써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사업이다.

충남 보령시 향군, 자매부대 스포츠 용품 지원

충남 보령시 향군(회장 임기혁)은 10월25일 자매부대인 보령대대를 방문, 농구, 축구, 배구등 군 복무 중 장병들의 스포츠 단결활동을 위한 용품을 전달, 지역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안보전략논단 발간

- 향군회원에게 국내·외 안보현안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보전략논단'을 매월 발간합니다.
- 향군홈페이지 '안보전략논단' 배너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보전략연구원

강원도 향군,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

평화의미 되새기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원도 향군(회장:권동용)은 분단현장 DMZ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지역(5개 군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군)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 행사를 가졌다.

평화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5일부터 7일까지 인제 · 고성군 일원에서,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철원 · 화천 · 양구군 일원에서 2차례 진행된 이번 행사는 80여명이 참가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1차 참가자들은 화진포 안보전시관, 생태박물관, 화진포 둘레길 도보탐방,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건봉사, 왕곡마을, 자작나무 숲 등을 둘러봤으며 2차 참가자들은 한탄강 둘레길 도보탐방,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평화의 댐, 양구 수목원, 박수근미술관 견학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향군 독일지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이 만든 명예로운 역사"



향군 독일지회(회장 유상근)는 10월2일 중부독일 레버쿠젠에 소재 중식당에서 독일지회 설립 1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규환 고문은 이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상근 지회장을 대신해 "오늘의 모습은 향군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낸 우리의 자랑이요, 명예임을 강조" 하며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유상근 회장을 위시해 임원 그리고 향군 모두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공로휘장을 받은 한일동 이사는 "오늘 받은 공로휘장은 나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생각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 향군, 엔젤스데이 파티하우스와 업무협약

경기도 김포시 향군(회장 이영길)이 10월25일 장기동소재 엔젤스데이 파티하우스 뷔페와 향군할인 가맹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엔젤스데이 김포점은 2014년에 개점하여 기업행사, 돌잔치, 웨딩, 칠순연, 홈파티, 출장뷔페, 도시락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도회장 릴레이 제언 / 향군을 말한다 ⑩

안보 자긍심속 향군의 가치 실현해 나가는 조직

경영 마인드 갖춘 기업가정신 필요…실용성 추구, 합리적 조직 육성



나 종 수
광주 전남 재향군인회 회장

광주 전남 재향군인회는 올해 창설 69주년을 맞이했다. 광주 전남 향군이 창설된 1952년은 6.25 전쟁의 포화가 한창 이었다. 당시에는 향군의 역할과 의미가 중대했을 것이다. 이런 뜻 깊은 창설의 역사를 갖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면서 향군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 전남 향군회장으로 2018년 3월에 취임을 했다. 저는 향군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슬로건으로 "강하고 부드러운 향군" 을 내세웠다.

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실용성을 강조한 덕목으로 볼 수 있다. 공직생활을 거쳐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였던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경영과 더불어 후학을 양성하는 초빙교수로 역임하면서 시대에 맞게 중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기도 하였다.

이젠 재향군인회도 기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로 전환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광주 전남 향군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바탕으로 향군활동을 실천한다.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구성원들을 후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지도력' 이다.

평소에 향군회원을 만나면서 소통과 협력을 항상 중시한다. "참여가 봉사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 는 생각과 소신을 갖고 향군회원의 귀중함과 역할을 강조했다.

광주 전남 향군은 27개 시 · 군 · 구회로 구성되어서 임직원 및 향군회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했다. 27개 시 · 군 · 구회 향군의 업무를 가장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단과 소통의 자리를 수시로 개최했다.

실무적으로 수렴된 의견과 시 · 군 · 구회의 회장단으로부터 소중한 의견과 정책을 수용하는 협력관계를 잘 운영하고 있다.

광주 전남 향군에서 마련한 회장단 및 사무국장단과 소통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협의되고 요청되는 사항은 재정확보 방안과 향군조직 활성화였다. 소통과 협력에서 논의된 결과와 내용은 시 · 군 · 구회별로 재정확보를 위한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획득예산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 이유는 시 군 구회가 다양한 특색과 다른 역량을 보유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시 · 군 · 구회 별로 향군발전 및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와 개선사례를 정리해서 발표하고, 협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해서 향군발전에 기여가 되었다.

여성회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서 최대한 자율적이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여성회는 사용하는 예산에 비해서 그 활동의 내용이나 폭이 넓어서 향군의 이미지 극대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여성회의 임원과 회원들이 뜻을 모아서 수립한 사업계획이 봉사활동과 향군 본연의 사업이 진행되도록 꾸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앞으로도 광주 · 전남향군은 여성회가 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향군은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 사업수입 등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향군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지자체와 협력관계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협력관계가 지속이 되면 향군회관 건립비 그리고 안보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획득할 수 있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획득해서 향군회관을 갖게된 사례가 광주광역시 동구회와 북구회였다.

광주 전남 향군의 '안보회관' 도 1984년에 건립되어서 내 · 외부가 많이 노후가 되었다. 광주 전남 향군은 '안보회관' 보수의 필요성은 절실했음에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결과 2019년 지자체로부터 6억2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획득하여 '안보회관' 보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임대료 수입도 2배 이상 수익을 가져왔다.

앞으로도 지자체로부터 더욱 많은 보조금과 운영비를 획득해서 향군이 지향하는 안보 의식을 고취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향군회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다.

광주 전남 향군은 최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발의로 향군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는 내용이 골자다.

향군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향군 운영의 기반이 두터워지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 향군정신에 맞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향군간의 우정을 발휘한 코로나-19의 극복사례를 소개한다. 2020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초창기에 대유행이 되어서 대구시민들의 마음의 고통이 매우 컸었다. 매년 호 영남 교류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광주 전남 향군은 대구 향군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광주 전남향군은 이사진과 시 군 구회 회장단의 뜻과 의지를 모아 대구향군에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마스크와 금일봉을 전달했다.

광주 전남 향군은 '친목, 애국, 명예' 정신을 더욱 드높여 안보 제2보루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봉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향군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그 역할과 책무를 다 할 것이다.

각급회 소식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안보계도에 팔 걷어… 향군 각급회 활동

(9월21일 – 10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 10월13일 원주 백운산양농장에서 구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논의 및 친목 도모.



성북구회 : 10월6일 향군회관에서 김일영 성북구의회 의장 명예고문 추대행사 및 간담회를갖고 회 발전방안 논의.



서대문구회 : 10월14일, 15일 연희어린이집에서 비대면 동영상 교육자료를 통한 우리나라의 5대 상징물 교육.

영등포구회 : 10월15일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등 관내 현충시설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화 활동.

마포구회 : 10월19일 홍제천 주변 취약지역 집중 자연정화활동 실시.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10월2일 국립국악원에서 국군의 날 및 향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악공연 개최. 10월7일 지역 내 홀로 어르신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라고 동내의와 위문품을 전달.



부산진구회 : 9월28일 관내 6.25참전 기념비를 참배, 호국영령의 얼 기리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기장군회 : 10월15일 무공수훈전공비, 6.25명비 등 관내 현충시설을 참배하고 주변 정화활동 실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10월13일 남동초등학교 학생 70여 명과 교사 3명을 초청하여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학생 나라사랑 안보 역사체험 교육 실시.



동구회 : 10월5일 신암 5동 동서시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활동 실시. 여성회는 10월12일 지역 내 홀로어르신에게 모기퇴치를 위한 식물과 간편 음식 등 지원물품 전달.

서구회 : 여성회는 10월1일 제일복지관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반찬만들기 봉사활동 실시.



수성구회 : 여성회는 10월6일 용지네거리 일대에서 교통질서 캠페인 봉사활동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0월15일 옹진군 덕적도에 위치한 덕적 중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군인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육 실시.





연수구회 : 10월7일 다나음한방병원과 향군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 회원복지 증진.

경기도 향군



시흥시회 : 청년단은 10월5일 긴급 방역봉사팀을 결성, 옥구공원 등 관내 공원과 다중이용시설 공동 화장실 방역 봉사활동. 9월27일 관내 공설묘지에서 방치된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활동 전개.



여주시회 :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마을 태극기 달기 행사 실시. 10월13일 미세먼지 저감 식물 가꾸기 행사를 통해 준비한 식물 3종을 관내 여강중 고등학교 각 교실에 지원, 학습환경 개선효과.

김포시회 : 9월28일 미소하나치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회원복지 증진.

강원도 향군



강릉시회 : 10월6일 향군회관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강릉시 향군 명예회장 추대패 전달. 10월18일 강릉 영동대 총장실에서 영동대와 양 기관 · 단체 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 체결.



홍천군회 : 9월25일 토리숲 및 홍천강변 일대에서, 10월14일 두개비산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나라사랑 줍깅 캠페인' 주관.



양구군회 : 10월19일, 20일 관내 저소득 6.25참전유공자 가정 LED 전등 무료 교체 및 주변 대청소 봉사. 10월12일 안보보훈단체장들과 비봉공원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 기려.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고종훈회장은 10월14일 음성군청을 방문, 조병옥 음성군수에게 향군대휘장 전수.

제천시회 : 9월28일 제천시 수산면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에 참석, 전자레인지 지원.

대전 충남 향군



아산시회 : 10월16일 여성회와 청소년 봉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6.25참전유공자 가정에 연탄 전달.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지역 안보전적지 순례행사를 실시하고 임직원들의 안보의식 고양.

완주군회 : 여성회는 10월6일 여성단체 특성화사업 일환으로 재활용품 화분 만들기 행사 실시.



김제시회 : 10월12일 금산사 입구에 위치한 안영권 하사 전공 기념비에서 산화 제69주기 추모제 열어.

무주군회 : 10월12일 황기석 강사를 초청하여 '튼튼한 안보 평화의 한반도' 를 주제로 안보강연회 개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10월14일 구례군회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및 향군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나눠.

보성군회 :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현충탑을 찾아 헌화 참배하고 호국영령 얼 기려.



해남군회 : 10월1일 현충탑을 참배하고 거동이 불편한 6.25참전회원 등 정부지원이 어려운 회원자택 봉사활동 계획 발표.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양정석 회장이 10월7일 고령군회 명예회장으로 향군 및 보훈대상자 예우에 기여한 곽용환 고령군수에게 향군 공로휘장 수여.



영주시회 : 여성회는 9월30일 자매부대인 경북전문대학교 제301학생군사교육단을 방문, RNTC부사관 후보생들을 격려하고 위문품 전달. 10월5일 평은면에 위치한 평은면 6.25전쟁 참전용사 선양비 주변 정화활동 실시. 10월16일 축산회관 식당에서 박형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업무 현안 협조 요청.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9월30일 정인규 회장은 경남도의회를 방문, 김하용 의장과 조영제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예산지원 협조 요청.

유튜브방송 「향군TV」 채널운영

※접속방법:https://youtube.com/향군tv

향군TV 바로가기▶





창원 진해구회 : 10월8일 창원시장 초청으로 시청을 방문, 허성무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무현안 논의.

밀양시회 : 10월6일 향군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건, 향군의 날 행사 건 등 현안 업무토의. 10월7일 제5870부대 2대대를 방문, 위문품(예초기 2대)을 전달하고 안보간담회 실시. 10월15일 여성회는 밀양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반찬도시락 배달 봉사 실시.



하동군회 :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얼 기려.

진주시회 :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진양호 공원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얼 기려.

창녕군회 : 청년단은 10월12일 창녕군청과 연계하여 관내 가정에 전기 설비 등 재능기부 활동.

김해시회 : 10월13일 향군회관을 방문한 제5870부대 3대대 대대장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업 협조 논의. 10월19일 천원의 밥집에서 1% 행복나눔 급식봉사활동 실시.

통영시회 : 여성회는 10월14일 '걷기 좋은 길 줍깅' 행사 일환으로 RCE 자연생태공원 일대에서 자연 정화 활동 전개.

고성군회 : 10월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운영, 회 홍보활동 및 봉사활동 전개. 10월18일 8개 안보단체와 보훈회관에서 서부보훈지청장 간담회을 갖고 국가유공자 예우개선 및 수당 인상 논의.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10월6일 해충방제, Covid-19 방역 전문회사 캡스 클린케어서비스 제주본부와 향군할인가맹점 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증진. 여성회는 9월27일 제주지방합동청사 어린이놀이터에서 환경정화활동 및 방역봉사 실시.



서귀포시회 : 10월20일 올레 6코스 검은여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 수거 등 올레환경 클린운동 전개.



친목단체 활동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관람



성우회(회장 이종옥)는 10월7일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의 초청으로 '2021년 국방일보 보도사진전' 을 관람했다.

제1차 동기회장 간담회



갑종장교전우회(회장 박훤재)는 10월7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제1차 동기회장 간담회를 거행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송병과 창설 기념행사



수송동우회(회장 서귀철)는 10월7일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제70주년 수송병과 창설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회장 박형수)는 10월14일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다부동전투 구국영령 추모제를 거행하고 호국의지를 기렸다.

백마고지 참전 3군신 추모제



백마고지참전전우회(회장 박명호)는 10월12일 어린이대공원 3군신 동상앞에서 백마고지 참전 3군신 추모제를 거행했다.

정관개정 검토 추진위원회의



해병대전우회(총재 이흥희)는 10월14일 향군회관 회의실에서 정관개정 검토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했다.

향군TV 유튜브 방송 '향군 안보정론' 개설

❑ **목 적**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효과적인 대국민 안보활동 추진

❑ **내 용**

- ○ 유튜브 방송명 : 향군TV 내 향군 안보 정론 / 이슈체크
- ○ 방송 주제 :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이슈
- ○ 영상 업로드 주기 : 주2회(매월 8회 이상)
- ○ 방송 시작 일시 : '21. 5. 1일부
- ○ 대상 : 향군회원 및 국민

❑ **출 연 자**

- ○ 향군에서 선발된 안보교수진

❑ **방송 찾아보는 방법**

- ○ 유튜브 검색창에 '향군TV', '향군 안보정론', '이슈체크' 검색
- ○ 주소 : YouTube.com/향군TV

향군회원들과 국민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향군, 주)카페베네와 회원복지혜택 시험 적용

향군은 주)카페베네와 회원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우대가맹점 협약 체결을 앞두고 서울과 경기도 2개 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복지혜택 시험 적용행사를 가집니다.

적용매장

서울지역(11개) : 삼양사거리점, 장평점, 청량리역점, 방이동점, 성수동점, 사당역점, 선릉역점, 논현역점, 신정네거리역점, 화곡중앙점, 더메이호텔점

경기지역(15개) : 의정부민락점, 의정부역점, 포천일동점, 여주중앙점, 수진역점, 금촌로터리점, 김포사우점, 송탄신장점, 안성점, 오산대점, 일산탄현역점, 운천터미널점, 덕소역점, 시흥장곡점, 일산웨스턴돔점

☞ 매장방문시 향군회원 전용 할인쿠폰 사용이 제한되면 카페베네(1688-4666)또는 본회 복지부(02-417-5255)로 문의

기 간 (2021. 11. 1 ~ 12. 31)

혜 택

- – 3개 등급 중 향군회원은 2등급인 "BEST" 등급으로 부여
- – 재향군인회 전용 쿠폰 발급
  (회원 가입 후 일주일 내 발급 / 쿠폰사용기간 발급 후 30일간)
  아메리카노 2000원 할인 디저트 30% 할인
  테이크아웃 시 음료 50% 할인 팥빙수 30% 할인

카페베네 멤버십 가입

1. **카페베네 앱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폰(Play 스토어), 아이폰(앱 스토어)에서 "카페베네" 검색
2. **회원가입 로그인 :** 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한글+영문+특수문자로 8~16자 이내)
   ☞ https://join.caffebene.co.kr/welcome
3. "추천한 직원 아이디 / 제휴" 란에 **"재향군인회"** 입력
4. **회원가입 완료** 후 홈화면에서 쿠폰함 터치
5. 향군회원 전용 **할인쿠폰** 확인 후 매장 직원에게 제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조직복지국

특별기획 / 호국산성기행 ⑩ 청주 상당산성

청주상징 건축… 임진왜란, 이인좌의 난 등 역사 현장 지켜봐

위기마다 주민 지킨 울타리, 보은 삼년산성과 함께 충청북도 대표 산성

상당산성은 청주시 동북쪽, 청원군과의 경계를 이루는 상당산(492m) 위를 두른 산성이다. 충청북도 일대에는 곳곳에 산성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상당산성은 보은의 삼년산성과 함께 충청북도의 대표 산성으로 꼽힌다.

산성의 면적은 12.6ha, 성 둘레 4,400m이며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석재로 수직에 가까운 성벽을 구축하고 그 안쪽은 토사로 쌓아올리는 내탁공법으로 축조하였으며 높이는 4.7m이다.



동·서·남방 3개소에 성문을 두었는데, 남문은 무사석으로 홍예문을 만들고 그 위에 목조 문루를 세웠다. 지금은 석축 부분만 남아 있고, 성문의 높이는 3.5m, 너비는 4.2m이다.

동문과 서문도 역시 문루가 있었으며 성문은 무사석으로 네모지게 축조하였는데 높이 2.7m, 너비 2.8m이다. 동문과 남문 부근에 1개소씩의 암문이 있고 동남방에 수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여기에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다.

상당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백제시대 때 토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김유신의 셋째 아들 김서현(원정공)이 서원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하기도 한다. 이후 조선시대까지 상당산성은 누대에 걸쳐 수축·개축되면서 청주의 보루 구실을 해왔다.

임진왜란 중 원균이 충청병사로 있을 때 수축한 적이 있고(1592) 숙종 42년(1716)부터 4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석성으로 개축되었다.

영조 4년(1728)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반군이 이곳을 점령했다가 관군에게 궤멸된 후 상당산성 경영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영조 7년(1731)에 남문의 문루를 세우는 등 대대적인 보수를 했고 이후 100여 년에 걸쳐 수차례의 보수공사를 거치는 가운데 옛 상당성의 성벽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완벽한 산성의 격식이 갖추어졌다.



천년고도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상당산성은 청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천년고도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상당산성은 청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멀리서 보아도 상당산이 머리에 띠를 두른 듯 또렷하게 보이는 성벽은 위기때마다 청주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파수꾼이다.

상당산성은 오목한 분지를 둘러싼 포곡식 산성으로 한 마을이 들어서기에 충분한 공간을 지니고 있다. 현재 5만 4,700여 평에 이르는 성안에는 논도 있고 큰 저수지도 있으며 민가가 40여 채 있다.

향군 할인가맹점

▲향군 할인가맹점 협약 업소현황
전국 1,166개 업소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 예약

▲향군 할인가맹점 찾기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할인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사용 예정시 해당 지역 시·도 / 시·군·구 재향군인회로 전화 문의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킹스치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05, 휴먼타워 3층) 010-2351-5402 : 10~60%
- **나사렛국제병원**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032-899-9999 : 비급여 20%
- **미소하나치과의원** (경기도 김포시 솔터로 22 예미지아파트상가 103동 2층) 031-987-2808 : 10~20%
- **다나음한방병원** (인천시 연수구 먼우금로222번길13, 우경프라자) 032-813-1070 : 비급여 10%
- **서울수려한치과의원**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22, 옥정스카이타워 4층) 031-928-5098 : 비급여 10~20%

식당/음료

- **바다식당**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 13) 032-836-2476 : 10%

기 타

- **미라노콘텐트안경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산로 42) 063-251-7977 : 10~30%
- **캡스클린케어** (제주시 선던로8길 3) 010-8305-7698 : 10~20%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051-990-6114 : 10~20%
- **대구의료원** (대구시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 10%
- **보니파시오 요양병원**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43-5) 042-717-1000 : 20%
- **성심치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3) 031-747-4340 : 10%
- **연세안과의원**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032-543-3471 : 정상가 3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남해안대로 857) 055-644-1777 : 10~15%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 비급여 10%, 제증명 50%
- **거붕백병원** (경남 거제시 계룡로 5길 14) 055-733-0000, 비급여부분 10%
- **실로암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514번길 229-34) 031-867-3131 : 비급여 50%(가족 포함)
- **서울척병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47길 8) 1599-0033 : 비급여 10%
- **서울매일치과**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 033-812-2882 : 비보험 10% 등

숙박/리조트

- **라마다문경새재호텔** (경북 문경시·읍 새재2길 32-3) 054-504-7077 : 객실 30%
- **메종글래드 제주** (제주시 노연로 80) 010-4692-1219 : 20~30%
- **신안비치호텔**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061-243-3399 : 객실 30%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02-221-2000 : 정가의 40~50%(디럭스 객실, 조식) (삭제)
- **그린라군 호텔 인 설악**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41) 010-6728-2030 : 특가

기 타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95) 042-488-0424 : 이사비용 10%
- **진주 릴리플라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엠플러스웨딩**(군인공제회관 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군인공제회관 3,4층) 02-2190-2500 / 2222 : 15%
- **코바플라워**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548-1) 02-3679-7070 : 근조 3단 화환 78,000원 / 축하 3단 화환 59,000원
- **아이랜드 & 렌즈타운 당진점** (충남 당진시 중앙2로 21-5) 041-354-0008 : 10%
- **가족재가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54) 063-277-4632 의료보험 적용 件 외 10%
- **유)국제여행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107) 063-291-3434 : 10%
- **이담장례식장**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747) 031-866-7300 : 빈소사용료 50%

향군장학기금 기부

(21년 9월 23일 ~ 21년 10월 22일)

▶정기 기부 단위: 만원(기부누계)

- 前 향군홍보실장 이정호 1만원 (285만원)
- 권율부대 강모아 1만원 (75만원)
- 권율부대 김홍수 1만원 (14만원)
- 향군장학재단 정세관 1만원 (8만원)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 417-5887)

♣ 본 내용은 인터넷 "향군장학재단" 홈페이지(kvasf.or.kr)에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기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월 간
2019년 4월 1일 등록번호 서초, 라 11768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서초동, 1365-16)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탐방 / 참전용사 시설물 ⑤ 왜관지구전적비

낙동강 전투 승리 기념, 전몰장병 위훈 기려

미 제1기갑 사단, 북한 맞서 대구·왜관 전선 고수
왜관지구 전투 승전기념, 전몰장병 넋 추모



왜관지구전적비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고 전몰장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1978년 건립되었다.

전적비 약사에 따르면 1950년 8월 초 북한군은 5개 사단 병력을 왜관, 다부동 전선에 집중 투하하여 8월15일까지 대구를 침공할 기세로 총공격을 폈다. 이 때 미 제1기갑 사단은 왜관과 그 남쪽 일대에서 적의 거듭된 공세를 혈투 끝에 분쇄하였다.

이로 인해 초조해진 북한군은 9월 초에 다시 대구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총공격을 재개했고, 미 제1기갑 사단은 기동과 화력 그리고 과감한 반격으로 적에게 치명적인 출혈을 강요한 끝에 9월 중순에 이르러 적의 주력을 섬멸하고 끝내 대구, 왜관 선을 고수하였다.

북한 총공세 격퇴하고 역사적인 총 반격작전 결행 계기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에 호응하여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9월16일을 기해 역사적인 총반격 작전이 결행되어 미 제5연대 전투단은 금부봉을 거쳐 20일에 왜관과 작오산을 탈환하였으며 미 제1기갑 사단은 다부동을 거쳐 23일 상주로 진격, 낙동강을 도하하여 일로 북진하였다.

왜관지구전적비 좌측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여성이, 우측에는 전장에 나간 군인의 모습이 세워져 있다.

'영령들이여! 우리는 보았노라. 들었노라. 기억하노라. 이 곳 유학산 봉우리에 그리고 낙동강 기슭에 남긴 그 때 그 날의 거룩한 희생을,고귀한 피의 발자국 을 우리 겨레는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하리라.'

—왜관지구전적비 비석 비문



그리고 중간에 있는 비석에는 '영령들이여! 우리는 보았노라. 들었노라. 기억하노라. 이 곳 유학산 봉우리에 그리고 낙동강 기슭에 남긴 그 때 그 날의 거룩한 희생을,고귀한 피의 발자국 을 우리 겨레는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하리라.' 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영어로 번역을 해놓았다.

비문 양 옆에는 왜관지구 전사 약사문이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다. 외국인들도 와서 읽을 수 있게 해 두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보름 이상이나 전투가 이어지고 그만큼 피해가 많았지만 미국이 방어선을 견고하게 지켜주었고, 많은 공군과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낙동강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만약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였더라면 다부동 전투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투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관지구전적비를 돌아보며 많은 참전용사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군사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다.

이 전적비는 왜관지구전적기념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 기념관과 연계해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군·유엔군 희생 덕분에 세계 경제 군사강국으로 발전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주요 전투인 왜관지구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고 이 전투에서 전사한 전몰장병의 넋을 추모하며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된 기념관에는 남북한 관계, 우리나라의 발전, 호국영웅의 방, 전투모와 총기류 등이 있고, 야외에도 그 당시 사용된 탱크나 비행기 등 많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다. 6.25전쟁 당시 많은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자유가 뿌리내렸다. 특히 이들의 희생을 우리는 물론 후대에서도 기억하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려야 한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왔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러한 현충시설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를 가져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손 보 민 향군 대학생 인턴기자

건강정보

타는 듯 한 통증 '위-식도역류병'

위-식도역류병은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안쪽으로 타는 듯 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원인

위-식도역류병 질환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유발되는 경우이며 하부식도괄약근의 기능부전, 항역류 장치의 해부학적 결손, 식도의 산청소능 감소, 식도 점막의 저항성 감소, 위식도 역류를 촉진하는 위기능 장애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다.

증상

위-식도역류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위산 역류이다. 가슴 쓰림은 일반적으로 흉골 뒤의 작열감으로 설명되며, 주로 식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위산 역류는 역류된 위 내용물이 입이나 인두에서 인지되는 것이다.

그 외 다른 증상으로는 삼킴곤란, 흉통, 연하곤란, 목의 이물감, 만성기침, 쉰 목소리, 쌕쌕거림, 드물게 메스꺼움이 있다.



치료

위-식도역류병 질환은 적절한 치료로 삶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 일부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위산 분비 억제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치료에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4-8주 정도 투여한다.

프로톤펌프억제제의 효과가 낮은 환자에서는 칼륨경쟁적산분비억제제를 사용 할 수 있다. 약물투여로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나 중증 재발성 역류질환인 경우,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경우와 같은 일부 환자에서는 내시경시술이나 항역류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예방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식이요법 및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복압을 증가시키는 행동 및 꽉 조이는 옷을 입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또 금주, 금연을 하고 식후 3시간 이내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좋다.

밤에 증상이 심하면 야식을 피하고 취침 시 상체를 높이는 게 좋으며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는 기름진 음식, 초콜릿, 탄산 음료, 커피, 신 과일 주스 등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방치 위험

식도 합병증으로 식도 궤양, 출혈, 바렛 식도, 식도 협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드물게 식도 선암도 발생 할 수 있다. 식도 외 합병증으로 만성 후두염, 천식 악화 등이 발생 할 수 있다.